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48

오이타(大分)에서 후쿠오카(福岡)로 돌아왔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슈(九州)에서 눈을 보게 되다니 정말 놀랐습니다만 교회와 모든 분들의 따스함이 저를 푸근히 감싸주었습니다. 모레는 곧장 홋카이도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3 월의 지진 재해로부터 1 년을 맞이하며 '속편·유랑의 교회'를 출판하게 되어 여행지에서 급히 서둘러 펜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머리말'을 출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먼저 여기에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1 월 26 일(수) 오이타(大分)를 떠나며
사토 아키라(佐藤彰)

'속편·유랑의 교회' 프롤로그

지난 3 월 11 일(금) 동일본을 습격한 대지진 재해로부터 벌써 일년 가까이 되어옵니다.

그 당시에는 하루가 너무나 길게만 느껴져 순간 순간을 연결하며 어떻게든 다음날을 맞이하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 거라고, 조금은 숨돌릴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보디 블로우(body blow)와도 같이 지진 재해의 상처가 서서히 육신거립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은 진행단계이지만 이렇게 밝아오는 해를 맞이하도록 생명을 연장시켜주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속편·유랑의 교회'를 출판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은 마치 지진 재해의 이정표와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겁고도 힘든 도정이 일단락 마무리 된 것 같기도 한, 저희에게 보내신 응원의 사인으로 느껴집니다.

그 어떤 작은 것이라도 한가닥의 희망과 힘이 된다면 매달려 우리가 할수있는 모든 것을 짜내어 겨우 여기까지 도착했습니다. 그 날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내던져져 갈팡질팡하며 거대한 지진재해를 피해서 헤메이던 우리들은 그 지진 재해 2 개월후에 출판된 '유랑의 교회'를 많은 사람들 손에 주어 주게 되었다는 뉴스를 듣고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어쩌면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아무도 모른 채 우리는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깊은 어둠과 공포 그리고 슬픔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소식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하던 저희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극한상황 속으로 비집고 들어온 따뜻한 사랑의 빛, 여러분의 사랑의 눈길을 받으며 그것을 양식삼아 이제까지 생명을 이어올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회에 출판된 '유랑의 교회'의 매출 일부는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그리고 후쿠시마(福島) 피해지역의 여러분과 교회에 기부해왔습니다. 저는 이 책을 각지에서 읽어주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서로 돕는 네트워크가 되어 퍼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번에 출판 될 '속편·유랑의 교회'에서는 지진 재해 직후의 혼란 속에서 살아남은 저희가 그 날 이후 어떻게 유랑의 여행을 계속해 왔는지 그리고 그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과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어떠한 감동의 여행을 계속해 왔는지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제 1 장은 지진재해의 와중에 있었기에 쓸 수 있었던 제 육성과도 같은 지진 재해 일기, 제 2 장에서는 피난처에서 저희를 받아들여 주신 생명의 은인인 여러분의 증언과 부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지진 재해로 인한 심상(心象) 그리고 제 3 장과 4 장은 제가 그 후 각지를 순회하며 지진 재해 강연기록과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여행길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진 재해에 대한 관심이 날마다 희미해져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이 책을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손에 들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012 년 1 월 23 일(월) 오이타(大分)에서

사토 아키라(佐藤彰)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4 9

그제 계속해서 3 월에 출판될 예정인 '속편·유랑의 교회' 마지막 장에 예고 소개글을 한

줄 넣었습니다. 하네다(羽田)·오이타(大分)편에서 마음을 쏟아 쓴 글이기에 게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겨울은 규슈(九州)가 추울 정도니 과연 삿포로는 얼마나 추울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도착지가 영하 11도라는 기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

밖에 날씨가 매서울수록 규슈(九州)에서 만난 사람들의 인정이나 성품이 더욱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바로 지진 재해로 인한 만남이라고 생각하니 이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각지를 돌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단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은 난생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몇번이나 만난 적이 있는 분께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실례를 범하지나 않을까? 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제 너저분한 메모장 탕으로 돌리거나 정리의 소질이 없다고 해서 무마될 문제가 아니겠지요.

강연 의뢰를 같은 일정에 겹으로 잡거나 하는 용서될 수 없는 일을 무심코 해 버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제까지는 그저께 숙박한 후쿠오카(福岡) 호텔에 콘센트를 두고 오거나 요전에는 집회 회장인 ‘국립(코쿠리츠) 부인회관’을 ‘국립(쿠니타치)라고 잘못 인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국립(쿠니타치)에 가는 도중에 깨닫고는 다시 돌아서 국립(코쿠리츠) 부인회관 강연 시간에 간신히 맞추며 식은 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설마 어느 날 제 아내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일은 없겠지요,,,

1월 28일(금) 후쿠오카(福岡)출발 삿포로 기내에서
사토 아키라(佐藤彰)

‘속편·유랑의 교회’ 새 여정길에 들어서서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재해가 일어난 3일 후, 우리부부는 암담한 기분으로 가솔린과 적은 양이지만 식료와 모포를 준비하여 14일 밤에 구원 트럭 1대와 함께 치바현(千葉縣)에서 성도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후쿠시마현(福島縣)으로 곧장 차를 달렸습니다. 후쿠시마(福島)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심경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여정길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로부터 약 1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또 다시 새로운 여행길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동안 고뇌의 선택과 여행길의 연속이었습니다.

후쿠시마현(福島縣)에서 야마가타현(山形縣)으로 몰아치는 눈보라 속을 16 대의 차가 줄지어 조심스럽게 산을 넘었습니다. 2주일후에는 다시 따뜻한 관동지역을 목표로 60명 남짓이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어쩌면 지진 재해로부터 1년 후 후쿠시마현(福島縣)으로 되돌아와 새교회와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아파트 건설에 도전하게 되는 새로운 여행길의 서곡이었던 것이었는지요.

그리고보니 만약 지진 재해가 없었다면 저희 교회는 작년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한 주간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서로 도우며 따뜻하게 돌보는 일에 대해서 저희 교회는 이전부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결단으로 저희들은 교회가 되돌아 올 것을 후쿠시마(福島)에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그리운 성도님들과 합류하여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것입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작년 7월 25일(일) 저희는 도쿄 캠프장을 8개월후에는 비워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후에 어디로 가야할지를 상의했습니다.

시즈오카(静岡)나 군마(群馬)로는 갈 수 없었고 후쿠시마현(福島縣)에 남아있던 성도님들이 교회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손꼽아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현(福島縣)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고향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남쪽으로 60킬로 떨어진 땅에 약 40명이 생활할 아파트와 예배드릴 장소를 빌리기 위해 저희부부는 곧장 후쿠시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임대물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급전 직하로 전개되어 1개월후에 우리들은 교회와 고령자용 아파트를 건설하는 쪽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전개였습니다.

올해 3월에는 그런대로 멋진 아파트가 완성되고 8월에는 그곳에서 200미터 떨어진 곳에 새가 날개 펴고 새 여행길로 날아오르는 형상과 고향을 향해 십자가를 세우고 예배드리는 '기도와 부활'의 교회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은 이전의 사분의 일 정도로 줄었습니다만 전국으로 흩어진 백 수십 명의 성도님들과 기도로 함께하며 그 분들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숙박실도 지을 예정입니다.

이 날개 품은 교회가 끝없는 피난 생활의 그윽한 희망이 되어 저희가 드디어 독수리와 같이 힘차게 날개 펴고 날아오르는 부흥의 심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금까지 전국각지와 세계 분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은 저희는 온 세계 분들의 기도를 한 아름 안아 새교회에 감사기도로 바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도우미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 바로 이 외에는 값을 길이 없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있습니다.